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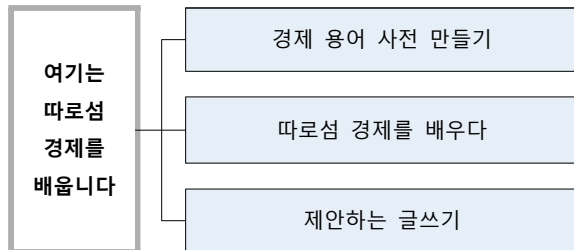
여기는 따로섬 경제를 배웁니다

- * 글 : 원예지
- * 그림 : 유설화
- * 출판사 : 천개의바람
- * 정가 : 11,000원
- * 분량 : 120쪽
- * 대상 : 초등 중 이상

· 책 소개

사회를 운영하는 경제 원리를 재미난 이야기로 풀었다. 따로섬이라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맞닥뜨린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쓸까?’ 함께 고민하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경제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좀 더 잘 생산하고, 좀 더 잘 소비하고, 좀 더 잘 분배하는 경제 원리의 실천이 개인의 삶은 물론, 우리 사회를 잘 운영하는 원리와 다름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독후활동 주제망



교안 개발 : 허니에듀

★허니에듀는 ‘공부가 꿀처럼 달콤한 세상’을 꿈꾸는 교육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유초등학부모들의 커뮤니티 허니에듀와 멤버십 서비스 허니에듀 북클럽(유아-초등-청소년)을 운영하며 다양한 독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허니에듀밴드 : band.us/@honeyedu

•허니에듀카페 : <http://cafe.naver.com/honeyedu>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여기는 따로섬 경제를 배웁니다』의 책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번호	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예)	따로섬이라는 게 무엇 뜻할까? 따로섬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경제 활동을 할까?
(1)	
(2)	
(3)	

2. 따로섬과 주민 소개를 보면서 따로섬에 대해 궁금한 점을 써 보세요.

번호	궁금한 점	예상하는 답
(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과 따로섬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같을까?	따로섬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이니 비슷할 것 같다.
(1)		
(2)		
(3)		



독서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며 읽기

『여기는 따로섬 경제를 배웁니다』를 읽으면서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장	새로 알게 된 내용
1장. 바꾸는 건 어렵!	(예) 물건값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2장. 물건을 편하게 사려고	
3장. 한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요	
4장. 돈을 맡기고 찾아 쓰는 곳	
5장. 비싸고 싸고	
6장. 어느 것이 더 필요할까요?	
7장. 사업에 투자하세요	
8장. 나라끼리 장사해요	
9장. 물건에 문제가 생겼어요	
10장. 이 물건은 어디서 왔을까?	



독서 후 독후활동 주제1_경제 용어 사전 만들기

1. 다음은 『여기는 따로섬 경제를 배우다』에 나온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정리한 것입니다. ①~④의 각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보기]	물물교환	수요	공급	기회비용
------	------	----	----	------

①	• 뜻 : 필요한 물건을 가진 사람끼리 직접 물건을 맞바꾸는 것. • 예문 : 서로 원하는 물건이 맞아떨어져도 물건값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면 ()을 하기가 어려워요.
②	• 뜻 : 한 품목의 생산이 다른 품목의 생산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관점에서, 어떤 품목의 생산 비용을 그것 때문에 생산을 포기한 품목의 가격으로 계산한 것. • 예문 :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 적은 쪽이 비교우위를 가진다.
③	• 뜻 :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양. • 예문 : 상품이 가격이 오르면 ()량이 늘고, 가격이 낮아지면 ()량이 감소하는 관계를 '()의 법칙'이라고 해요.
④	• 뜻 :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양. • 예문 : 보통 가격이 높으면 ()량이 줄고, 가격이 낮으면 ()량이 늘어요.

2. 『여기는 따로섬 경제를 배우다』를 읽으면서 어렵게 느낀 용어를 표시하고 사전에서 찾아 다음, 위 1처럼 정리해 보세요.

	• 뜻 : • 예문 :
	• 뜻 : • 예문 :



독서 후 독후활동 주제2_따로섬 경제를 배우다

1. 『여기는 따로섬 경제를 배웁니다』를 읽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가) 까까군은 곰곰 할머니의 머리를 자르면서 의자를 구하려고 겪은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똑딱 아저씨에게 갔다가 꼬꼬 아주머니에게 갔다가, 오르락 군에게 갔다가, 둥글 아가씨에게 갔다가 다시 오르락 군, 꼬꼬 아주머니, 똑딱 아저씨에게 되돌아온 긴 이야기를 말이지요. <중략> “물건끼리 서로 바꾸는 것은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아요. 좀 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나) 따로섬 사람들은 족장의 표시가 되어 있는 조개껍데기를 ‘돈’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로섬 게시판에는 돈으로 가치를 매긴 가격표가 붙게 되었지요.

① 따로 섬에서 돈이 없었을 때와 돈이 생긴 후에 거래 방법을 비교해보세요.

돈이 없었을 때	돈이 생긴 후

② 따로섬에 시장이 생긴 후 따로섬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짐작해보세요.
⇒

2. 곰곰 할머니네 방앗간에 은행을 열었어요. 은행의 필요성을 잘 모르는 따로섬 주민들에게 은행의 편리한 점을 알려주는 광고를 만들려고 해요. 다음 조건을 참조해서 광고문을 만들어 보세요.

<조건> 1. 예금과 대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 일반은행입니다.



독서 후 독후활동 주제3_제안하는 글쓰기

1. 『여기는 따로섬 경제를 배웁니다』에서 따로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제안하는 글을 써 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해결해요
① “집에 있는 거울이 깨져서 새로 거울을 사러 왔어요. 그런데 정말 예쁜 진주 반지가 있는 거예요. 거울은 매일매일 내 옷매무새를 다듬을 때 필요하지만 언제든 살 수 있어요. 반지는 꼭 끼고 나가야만 하는 물건은 아니지만 지금이 아니면 영원 살 수가 없어요. 둘 다 사기에는 돈이 모자라요. 어떤 것을 사야할지 모르겠어요.”	⇒
② “제가 장작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일꾼을 한 명 고용해야 하고, 새 도끼와 수레, 창고도 필요해요. 그래서 돈이 좀 있어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더 이상 돈을 빌리기 어렵네요.”	⇒
③ “뱅글씨가 판 티셔츠는 싸고 예뻐요. 그런데 빨래 몇 번 하고 나니 무늬가 다 사라졌어요. 뱅글씨에게 말했다니 우리가 빨래를 세게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싼 옷이니까 아무 문제없대요. 뱅글씨가 판 옷은 정말 문제없는 걸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요?”	⇒

2. 증서를 팔아 사업이 번창한 도끼 군이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에서 도끼 군이 따로섬의 주민이자 장작 회사 주주들에게 할 감사인사를 써 보세요.

제목 :

[독서지도안]

-예시답안

<도서명 : 여기는 따로섬 경제를 배웁니다>

출판사 : 천개의바람

■ 독서 전

1 (예시답안)

- (1) (앞표지 그림을 보고) 따로섬은 어디에 있는 섬일까?
- (2) (뒤표지 글을 읽고) 따로섬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 (3) (뒤표지 글을 읽고) 주민들은 따로섬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2. (예시답안)

- (1) 따로섬의 주민들은 모두 몇 명일까?
- (2) 따로섬의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 (3) 따로섬에도 돈이 필요할까?

■ 독서

(예시답안)

- 1장. 물건값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 2장. 돈으로 물건값을 나타내면 어떤 것이 더 가치가 크고 작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 3장. 중간상인들이 한꺼번에 물건을 사서 소매상으로 보내고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 4장. 은행의 종류는 중앙은행, 일반은행, 특수은행이 있다.
- 5장.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형성된다.
- 6장. 소비를 할 때는 기회비용이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7장. 주식회사는 회사의 증권, 즉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주인이다.
- 8장. 경제 세계화로 경쟁이 심해지면 중소기업이나 힘이 약한 생산자들이 상품을 팔기 어려워진다.

[독서지도안]

9장. 소비자 기본법으로 소비자의 권리도 가진다.

10장. 우리가 물건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 독서 후_독후활동 주제1. 경제 용어 사전 만들기

1. ① 물물교환 ② 기회비용 ③ 공급 ④ 수요

2. (예시답안)

[주식]

뜻 : 기업이 많은 돈을 구하기 위해 만든 증서.

예문 :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모두 주식회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비자 기본법]

뜻 : 물건을 사는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라에서 만든 법.

예문 : 소비자 기본법에서는 소비자가 누릴 8가지 권리를 말하고 있어요.

■ 독서 후_독후활동 주제2. 따로섬 경제를 배우다

1. (예시답안)

① 돈이 없었을 때 :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야 했다.

돈이 생긴 후 :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돈의 가치대로 물건값을 매겨서 거래를 할 수 있다.

② 물건을 직접 들고 다니며 교환할 사람을 찾지 않아도 되고 시장에 가서 돈으로 물건을 사고팔 수 있어 편리해졌다.

2. (예시답안)

[독서지도안]

곰곰은행으로 오세요.

★(예금) 집에 돈을 보관하기 어려운 분은 우리 은행에 돈을 맡겨주세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집에 보관할 때보다 안전해요.

★(대출) 또 돈이 필요하신 분은 싼 이자로 돈을 빌려드립니다

튼튼한 금고 곰곰은행

■ 독서 후_독후활동 주제3. 등장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

1. (예시답안)

- ① 하나를 고르면 다른 건 포기해야 해요. 거울이 필요해서 가게에 간 거잖아요. 반지에 대한 기회비용은 얼마인지 고민해보세요.
- ② 회사의 주식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아보세요. 회사에 이익이 남으면 주식을 산 사람들에게 이익금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사업이 잘 될수록 투자도 늘어나게 될 거예요.
- ③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거나 다른 물건으로 교환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뱅글씨가 계속 불량 제품을 판다면 더 이상 따로섬에서 물건을 팔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해요.

2. (예시답안)

여러분 덕분에 장작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고 우리 회사에 투자해주시고 주주로서 우리 회사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1주에 조개껍데기 3개였는데 지금은 조개껍데기 7개가 되었습니다. 주주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